

6. 14일째 표본에서 나선균의 군락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태세균의 수가 많아지고 복잡성을 나타냈다.
7. 석회화는 7일째 표본에서 처음으로 관찰할 수 있었으며 28일째 표본에서 거의 석회화가 된 상태가 관찰되었다.

## ● 치주질환의 진행정도에 따른 치태세균의 형태적 분석에 관한 연구

안형준 · 이만섭 · 권영혁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 교실

慶熙大學校 齒科大學 附屬病院 齒周科에 내원한 慢性 齒周炎, 急性 進行性 齒周炎, 그리고 成人性 齒周炎으로 진단된 환자 42명과 건강한 齒牙를 보유한 齒科大學學生 14명(남자 18명, 여자 38명)을 대상으로 齒齦緣上 및 齒齦緣下 齒苔를 채취하여 位像差 顯微鏡으로 細菌의 形態學的 分포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齒齦炎 指數, 齒苔 指數, 齒齦裂溝 出血 指數, 그리고 齒周囊 깊이 등은 齒周疾患의 정도가 심해질 수록 증가했다( $P < 0.001$ ).
2. 齒齦緣像 齒苔 細菌과 齒齦緣下 齒苔 細菌의 분포를 비교했을 때, 少 螺旋菌만이 세 질환 群에서 모두 統計學的 有意性 있는 차이를 보였다.
3. 모든 齒苔 細菌 중 齒齦緣下 齒苔의 屈曲形 桿菌이 I, II, III, IV群에서 24.2%, 11.4%, 13.3%, 9.6%의 분포를 보였고, 總 螺旋菌은 8.4%, 19.1%, 26.3%, 19.6%의 분포를 보임으로써 이 두 종류의 細菌만이 질환 간 차이에 대한 統計學的 有意性이 있었다( $P < 0.01$ ,  $P < 0.05$ ).
4. 전체 細菌 중 運動性 細菌의 비율을 보았을 때, 齒齦緣像 齒苔에서는 각 群에서 유사한 분포를 보인 반면, 齒齦緣下 齒苔에서는 질환의 정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5. 모든 齒苔 細菌 중 齒齦緣下 齒苔의 屈曲形 桿菌과 總 螺旋菌만이 모든 臨床 指數에 대해 공히 有意한 相關關係를 보였다.
6. 齒齦緣下 齒苔 細菌 중 運動性 桿菌보다 總 螺旋菌이 齒周囊 깊이의 변화에 더욱 영향을 미쳤다.

## ● 치간부위의 너비와 관련된 골내결손의 발현빈도와 분포

이강남 · 한수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서울대학병원 치주과에 내원한 환자 중 외과적 치주처치를 받게된 환자 47명을 대상으로 치간거리 및 치조골 흡수 정도에 따른 골내결손의 발현빈도를 393 치간부위에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체 393개의 조사된 치간부위에서 28.8%(113부위)의 골내결손 발현빈도를 보였고, 너비가 2mm 이상되는 골내결손은 25.2%(99부위)의 발현빈도를 보였다.
2. 골내결손의 발현빈도는 치간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성있는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증가하였

으며 너비가 2mm 이상인 골내결손의 발현빈도는 더욱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5mm 이상의 치간거리 상에서는 치간거리가 증가함에 따른 골내결손의 발현빈도가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3. 치조골 흡수가 심할 수록 골내결손의 발현빈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있는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증가하였다.
4. 골내결손의 치간부위별 분포에서는 대구치부위에서 가장 많았고 전치부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5. 골내 결손의 근, 원심면에 따른 분포에서는 뚜렷한 통계학상의 유의성있는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6. 치아별 골내결손의 분포에서는 견치와 전치, 소구치 사이에서는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대구치에서 다른 치아보다 높게 분포하였으며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 ● 치주염시 치주낭의 깊이, 치태의 양 및 탐침시 치은출혈 유무에 따른 치주낭내 세균출현비율에 관한 암시야현미경적 연구

전진희 · 김종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저자는 치주염이 있는 치주낭내 치태세균의 출현비율과 탐침시 치은출혈유무, 치태의 양, 치주낭의 깊이와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Y대학교 부속병원 치주과에 내원한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상하좌우측 부위의 중절치, 제1소구치 부위 및 제1대구치부위를 선택하여 치은연하치태의 암시야현미경적 세균출현비율과 탐침시 치은 출혈유무, 치태의 양, 치주낭의 깊이의 관계를 비교, 관찰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치주낭의 깊이가 증가할 수록 운동성세균의 출현비율이 증가하였다.
2. 치태의 양이 증가할 수록 운동성세균의 출현 비율이 증가하였다.
3. 치주낭탐침시 모든 치은출혈부위의 운동성세균 출현비율이 비출혈부위에 비해 높았다.
4. 깊이 얇은 치주낭(5mm 이하)에서는 탐침시 치은 출혈부위의 운동성세균 출현비율이 비출혈 부위에 비해 높았으나, 깊은 치주낭(6mm 이상)에서는 약간의 차이만이 있었다.
5. 치태의 양이 적을 때(치태지수 0.1)에는 탐침시 치은 출혈부위의 운동성세균출현비율이 비출혈 부위에 비해 높았으나 치태의 양이 많을 때(치태지수 2.3)에는 약간의 차이만이 있었다.

## ● 치근분지부위의 법랑질돌기의 발현빈도와 조직파괴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조기영 · 최상묵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서울대학교병원 치주과에 내원한 성인성 치주염 환자를 대상으로 386개의 대구치에서 외과적 치주치료시 치조골을 노출시킨 상태에서 치근분지부의 법랑질돌기의 발현빈도를 관찰하고 그 발현유무와 furcation involvement 유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The prevalence and distribution of intrabony defects as related to the width of interproximal

Kang Nam Lee, Soo Boo Han

Dept. of Periodontology, College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a possible correlation between the interdental distances, severity of alveolar bone resorption and prevalence and distribution of intrabony defects.

393 interdental areas of 47 patients were examined during periodontal surgery by measuring the interdental distances and distance between cemento-enamel junction and alveolar crest to nearest 0.1m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overall prevalence of intrabony defects by interdental sites was 28.8% and the prevalence of intrabony defects more than 2mm width was 25.2% of 393 interdental areas examined.
2. The prevalence of intrabony defects increased with increasing interdental distance with positive and significant correlation, the correlation more high in intrabony defects more than 2mm width.
3. The prevalence of intrabony defects increased with increasing alveolar bone resorption.
4. In the distribution of intrabony defect by interdental sites, Intrabony defect was frequently associated with molars, least with incisors.
5. There was no significance in the distribution of intrabony defect by tooth surfaces.
6. Molar teeth showed higher prevalence in the distribution of intrabony defect than other teeth and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 Dark-field microscopic study on distribution of plaque bacteria in relation to pocket depth, amount of plaque or absence of gingival bleeding

Jin Hee Jeon, Chong Kwan Kim

Dept. of Periodontology, School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correlations between pocket depth, plaque index, and the gingival bleeding tendency and the percentages of bacteria in the subgingival flora of sites representing periodontitis.

One-hundred patients with untreated periodontal disease were included.

Central incisors, first premolars and first molars of each quadrant were selected from subjects which had pocket depth more than 3mm.

measurements from each sites by dark-field microscopic bacterial examination were re-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mean percentage of motile bacteria had tendency to increase with increased pocket depth scores.
2. The mean percentage of motile bacteria had tendency to increase with increased plaque index